

언어 영역



1 번부터 5 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0. ---(물음) 판서 내용과 노인의 말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相好不如身好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身好不如心好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 ① 건강한 마음을 위해 건강한 몸을 가꿔야겠어.
- ②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어른들을 본받아야겠어.
- ③ 바른 품성을 기르고 닦아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 ④ 어려운 일을 이겨 내기 위해 나의 한계를 극복해야겠어.
- ⑤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

1. ---(물음) 강연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 ① 예술에 대한 통념은 시대를 초월하여 유지되는구나.
 - ② 전시적 가치가 없더라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구나.
 - ③ 한 작품이 인공성과 전시적 가치를 다 갖추기는 힘들구나.
 - ④ 직접적인 작업의 산물이 아니라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구나.
 - ⑤ 어떤 대상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구나.

2. ---(물음) 이 다큐멘터리의 설명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친숙한 사물에 비유하여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상반된 두 사례를 비교하여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 번과 5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3. ---(물음) 남자가 제안할 만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병원 평가를 통해 병원들의 경쟁력을 높인다.
- ② 자신의 소득에 맞게 건강 보험료를 내게 한다.
- ③ 건강 보험료를 올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④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본인 부담률을 달리한다.
- ⑤ 현행 건강 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건강 보험료를 낮춘다.

4. ---(물음) 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뷰 자료를 활용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아이가 배탈이 심하게 났는데,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 ②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진료비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 ③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는데, 병원 앞에 약국이 많아서 어느 약국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 ④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전문 용어를 써 가며 너무 빨리 설명하는 바람에 통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 ⑤ “인터넷에서 제 병에 대한 치료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더 악화되더라고요.”

1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 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5. ---〈보기〉의 내용을 서두로 하여 글을 쓰려고 한다. 바로 이어서 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터넷에는 유용한 정보도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많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서 손쉽게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 ① 정보의 상업적인 이용을 경계해야 한다.
- ② 정보 습득의 다양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 ③ 보고서 작성의 바른 태도를 교육해야 한다.
- ④ 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정보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6. ---‘삶은 연극’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 위해 배우가 연극의 요소들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상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우-무대) : 나는 내 삶의 터전에서 꿈을 펼치며 살아갈 것이다.
- ② (배우-관객) : 나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 ③ (배우-대본) :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 ④ (배우-조명) : 나는 주목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 ⑤ (배우-소품) : 나는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살려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7. ---학급 회의를 통해 급훈을 정하려고 한다. 회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갑 : 경쟁에서의 승리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만들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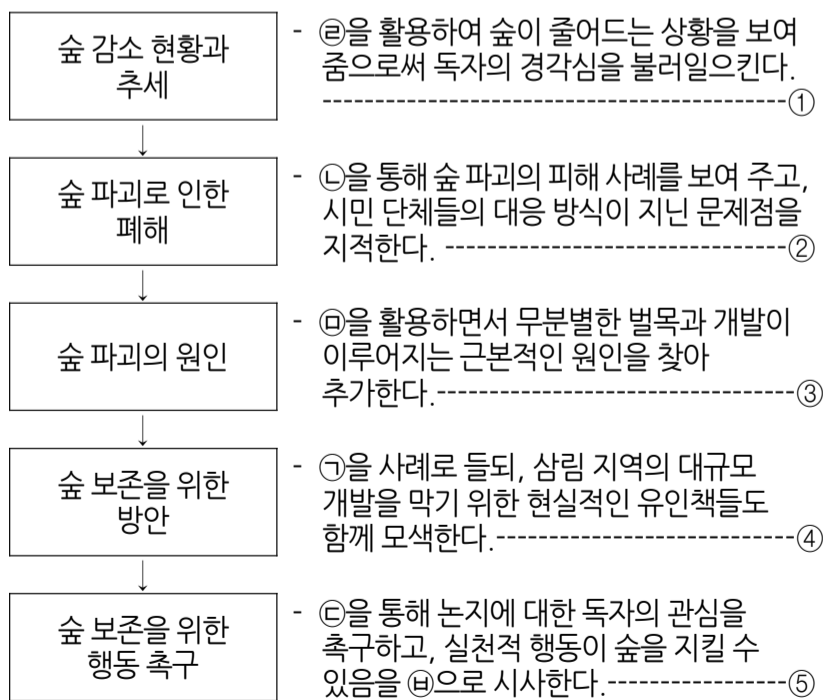
을 : 평범하고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겠군요.

병 :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운율감이 느껴지게 만들면 어떨까요?

- 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 ② 사랑하고 아껴 주자, 협동하고 단결하자.
- ③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 ④ 모두가 아름다리 고운 나무들, 더불어 숲이 되는 정겨운 우리.
- ⑤ 별처럼 빛나는 꿈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은하수를 이루었습니다.

8. ---'세계 숲 보존'을 촉구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논지 전개 방향에 따른 자료 활용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 그린피스와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 M, 곡물 업체 C 는 벌목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열대우림산공 구입을 중지하는 협정을 맺었다. - 워싱턴 포스트	㉡ 알프스 산악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이, 배기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 트레일러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를 봉쇄하였다.	㉢ 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주제는 먹거리(42.4 %)와 아토피(19.6 %)였으나, 생태보전(4.0 %)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 환경의식 조사
㉣ 세계의 숲 가운데 1/5 만이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 그중 40 %는 20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 세계 자원 연구소	㉤ 아마존의 대규모 벌목 사업 및 목초지 개발이 정부의 통제 밖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 아마존 환경 보호 연구소	㉥ 미국의 한 여성은 삼림 파괴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삼나무 위에서 2 년 남짓 생활한 끝에 대규모 벌목 사업을 막아 냈다. - □ 나무위의 여자 □



9. ----<보기>는 '여닫이문을 여는 방향'에 관하여 설명하는 발표문의

초안이다. 고쳐쓰기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왜 어떤 문은 안으로만, 어떤 문은 밖으로만, 또 어떤 문은 안팎으로 다 열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여닫이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닫이문에는 안으로만 열리는 안여닫이문, 밖으로만 열리는 밖여닫이문, 안팎으로 모두 열리는 양여닫이문이 있습니다. 이런 여닫이문을 여는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복도를 따라 늘어선 사무실들의 문은 보통 안여닫이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사무실 문을 밖으로 열게 된다면, 열린 문 때문에 좁아진 복도가 답답하게 ㉡ 느껴지겠지요? 또, 복도를 지나는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에 비해 극장문은 보통 밖여닫이문인데, 이는 비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긴급 대피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닫이문은 공간의 구조나 그 공간에서의 행동 원리에 따라 여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 여닫이문은 미닫이문에 비해서 문을 여닫기 위한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 여는 방향 하나에도 그 나름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습니까?

- ① ㉠에 제시한 내용을 둘째 문단에서 모두 언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은 '사람들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느끼겠지요'로 고친다.
- ③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에 '문에'를 보충한다.
- ④ 문단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을 '이렇게'로 바꾼다.
- ⑤ ㉤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10.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결 어미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얘기를 들습니까? / 얘기를 들소?
- 의자에 앉아라. / 빨리 밥을 먹어라.
- 날씨가 덥다. / 날씨가 덥지. / 날씨가 덥네.
- 비가 그치겠다. / 비가 그치겠니? / 비가 그치겠구나!
- 철수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 ①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군.
 - ②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군.
 - ③ 진술, 의문, 감탄 따위를 나타내는군.
 - ④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11. --<보기>를 참고하여 사전에서 동사에 대해 기술할 때,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서는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을 함께 기술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동사 '치르다'는 '…이 …에게 …을 치르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되는데, 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동사의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

(예문) 손님이 주인에게 밥값을 치렀다.
→ 치르다 [A](…이 …에게 …을) 주어야 할 돈을 내준다.

- ① (예문)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 깔다 [A](…이 …을 …에) 걸쳐서 벌리다.
- ② (예문)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 스치다 [A](…이 …에) 세게 닿거나 마주치다.
- ③ (예문) 동생이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다.
→ 맡기다 [A](…이 …을)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 ④ (예문) 형이 밥솥에서 밥을 폼다.
→ 폼다 [A](…이 …에서) 어떤 것의 속에서 떠내다.
- ⑤ (예문) 그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 여기다 [A](…이 …을 …으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울 만(灣)*의 파선도
설롱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엮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A]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 노령 : 러시아의 영토.
* 자래운 : 키운.
* 아무울 만, 니코리스크 : 오호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설롱한 : 춥고 차가운.

(나)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공깍지, 공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받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R]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月暈)」 -

* 월훈 : 달무리.

1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④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⑤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13. --(가)와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가)를 <

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보기〉

- 양털 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 길 / 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 주지 않았다 /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 / 술을 기울이면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

- 이용악, 「푸른 한 나절」 -

* 아라사 : 러시아.

- 아버지도 어머니도 / 젊어서 한창 땀 / 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 //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 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 /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절망이와 다름없이 / 얼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

- 이용악, 「우리의 거리」 -

* 우라지오 : 연해주 근처의 러시아 지명.

- ①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 ② ‘애써 자라온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군.
- ③ ‘아무일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 ④ ‘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할 수 있겠군.
- ⑤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14.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 ② 외딴집의 정경을 통해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 ④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 ⑤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1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 ② [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 ③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④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 ⑤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는 다양한 말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이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말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다.

말소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입 안의 여러 기관들과 코, 후두, 기관(氣管), 허파 등이 그것들인데, 이 중 후두는 발성 작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하다. 후두의 일차적 기능은 공기 외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인간의 후두는 갓난아이 시기에는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더 아래쪽에 자리 잡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나 오랑우탄의 후두는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다는 점이다.

후두의 위치는 모음의 발음 및 분화와 직접 관계된다.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종류로 분화되는 것은 후두 위쪽의 두 공간, 즉 목안과 입안을 울림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혀의 앞부분을 선입천장에 최대한 가깝게 함으로써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안을 최대화하면 ‘ㅣ’가 발음되고, 혀를 바짝 낮춤으로써 입안을 최대화하고 목안을 최소화하면 ‘ㅏ’가 발음되며,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가깝게 함으로써 두 공간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면 ‘ㅜ’가 발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음은 전설 모음 - 후설 모음, 고모음 - 중모음 - 저모음 등으로 분화된다. 한편, 입술도 모음의 분화에 관여하는데, 입술을 오므리고 뻗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 나누어진다.

자음은 대개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분화된다. 이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다양한 소릿값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ㄷ’은 혀끝을 윗잇몸 근처에 대어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듯 옆으로 내는 파열음이다. 여기서 ‘혀끝 - 윗잇몸’은 이 자음의 조음 위치가 되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듯 옆’은 조음 방법이 된다.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고, ‘ㅂ’은 두 입술을 닫는다는 점에서 조음 위치는 ‘ㄷ’과 다르지만 조음 방법은 같다. 그 밖에도 짝을 이루는 아래위의 두 기관 사이를 최대한 좁히고 그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켜 내는 마찰음이 있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코안을 울려서 내는 비음과,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내는 유음도 있다.

장차 이익까지 주게 됩니다. 저 잡목은 꽃도 잎도 볼 것이 없고, 과실도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그 뿌리가 굳세고 가지가 큼니다. 뿌리가 길게 뻗으면 지맥을 막아 복숭아나무가 번식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크면 햇볕을 가로막고 방해하여 양기(陽氣)를 소모하게 되니 복숭아나무가 번창하여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베임을 당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가 지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래, 그렇군.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너는 큰 도리를 듣지 못했느냐? 하늘의 도(道)는 만물에 두루 은혜를 베풀어서 비와 이슬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리고, 군자는 남을 두루 사랑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인(仁)의 경지를 이룬다. 그러므로 태산의 언덕에 ㉞ 소나무, 계수나무가 가죽나무, 상수리나무와 함께 자라고, 달인(達人)의 문하에 어진 이와 어질지 못한 이가 같이 있게 되지. 복숭아나무와 잡목은 예쁘다는 점과 못생겼다는 점, 특이하다는 점과 평범하다는 점에서 정말로 차이가 있지. 하지만 똑같이 천지의 기를 받아 태어났고, 태어나서 또 마침 나의 동산에 심어져 있구나. 사람이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버린다면, 잡목으로 태어난 존재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화원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모두 그 사이에 행(幸)과 불행(不幸)이 있게 하고 싶지 않다. 너는 얼른 가서 가꾸어라.”

- 남공철, 「동원화수기(東園花樹記)」 -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창작의 동기가 되고 있다.
- ②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 잊고자 한다.
- ⑤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 ⑤ (가)는 (나)에 비해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21. --(나)의 화자가 <보기>의 ㉠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강호(江湖)에서 살아가는 어부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실제 어부, ㉠ 이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자(隱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①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군.
- ② 화자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기에 ‘배 한 척’은 한가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 ③ 화자는 자신이 긍정하는 삶을 ‘도롱이’ 입고 ‘삿갓’ 쓴 어부로 표상하고 있군.
- ④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뱃사람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
- ⑤ 화자는 ‘옥당’이라는 공간과 거리를 둬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군.

22. --(다)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잡목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 ② ‘나’는 복숭아나무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 ③ ‘중’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 ④ ‘중’은 복숭아나무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 ⑤ ‘나’와 ‘중’은 모두 잡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군.

2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② ㉡, ㉢은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 ③ ㉡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이고, ㉢은 고독을 느끼게 하는 사물이다.
- ④ ㉡는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을, ㉢은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⑤ ㉔는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을, ㉕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기 화학자들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유기 화합물의 조성과 구조를 분석하고 그러한 물질을 합성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다. 20 세기에 들어와서 유기 화학의 전통적인 구조 분석 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서 1940년대 중반에 양자 이론에 힘입어 발명된 NMR 분광계는 물질의 구조 분석 방법에 혁신을 가져왔다. ‘핵자기공명’을 뜻하는 NMR는 원자핵이 자기장 안에서 특정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전자기파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기구가 NMR 분광계이다. 이 기구를 사용하면 분자의 파괴나 변형 없이 화합물의 구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원래 물리학의 실험 기구였던 NMR 분광계를 유기 화학 연구의 핵심 장치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미국의 화학자 로버츠였다. 이 기구는 당시에 유일하게 배리언 사에서 제작하고 있었는데, 로버츠는 이것의 가치를 남들보다 ㉖ 일찍이 인식하고 1950년대부터 이 기구로 미지의 분자 구조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로버츠는 ‘선도 사용자’로서 유기 화학계에 이 기구의 유용성을 열심히 알렸다. 그는 NMR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이 기구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교재로 출판했다. 로버츠의 노력에 힘입어 이 기구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로버츠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자 이 기구가 자신의 연구 방향에 적합하도록 배리언 사에 이 기구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 배리언 사는 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데, 그것은 로버츠가 이 기구를 활용한 방법을 다수의 다른 연구자들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사는 로버츠의 요구대로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을 계속 내놓았고, 로버츠는 그것으로 자신의 연구를 순조롭게 진척시킬 수 있었다.

시장이 커지면서 배리언 사는 자체적으로 이 기구의 판매 증진을 도모했다. 이 회사는 유망한 화학자인 솔러리를 고용하여 대학의 유기 화학자들과 함께 NMR를 이용한 협동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이 기구와 관련된 실험 연구 정보를 학술지보다 더 빠르고 자세하게 과학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로버츠와 제조사의 노력으로, 1960년과 1961년 사이에 NMR에 바탕을 둔 학술 논문의 출판이 네 배로 증가하는 등, NMR 분광계를 사용한 연구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기 화학 분야의 첨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구입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NMR 분광학은 유기 화학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24. -- 로버츠가 수행한 ‘선도 사용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NMR 분광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그것의 개선에 기여했다.
- ② NMR 분광계의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학술지를 만들었다.
- ③ NMR 분광계를 일찍부터 사용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④ NMR 분광계의 장점을 관련 과학 분야에 널리 알려 그것의 보급에 기여했다.
- ⑤ NMR 분광계의 제작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이론을 제공했다.

25. -- 위 글에 제시된 로버츠의 ‘NMR 분광계’를 [A]라 하고 <보기>에 등장하는 웨버의 ‘중력파 검출기’를 [B]라 할 때, [A]와 [B]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16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했다. 미국의 물리학자 웨버는 중력파를 검출하기 위해 원통 형태의 기구를 직접 제작했다. 이 중력파 검출기는 자체적으로 많은 노이즈를 발생시켰지만, 웨버는 그 속에서 중력파 신호를 검출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웨버의 실험에 자극을 받아 여러 연구 팀이 자체 제작한 실험 기구로 중력파를 검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어느 팀도 성공하지 못했다. 웨버는 조작 시비에 휘말렸고, 그의 중력파 발견 주장은 물리학계에서 공인받지 못했다.

- ① [A]는 과학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B]는 인정받지 못했다.
- ② [A]는 전문 제조 회사에서 제작했고, [B]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했다.
- ③ [A]는 대상의 존재 여부를, [B]는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④ [A]는 검증된 이론에 기초해 제작되었고, [B]는 특정 이론의 검증을 위해 제작되었다.
- ⑤ [A], [B]는 모두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는 지각하기 어려운 대상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한 도구였다.

26. -- 위 글을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학 분야들 간의 교류가 과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겠구나.
- ② 기업체는 회사의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구나.
- ③ 새로운 연구 방법의 도입이 새로운 세부 연구 분야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구나.
- ④ 기업체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는구나.
- ⑤ 어떤 세부 연구 분야의 연구 방향은 영향력 있는 과학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겠구나.

27. --㉠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은? [1 점]

- ① 나는 오늘 일찍이 학교로 출발했다.
- ② 그녀는 아침 일찍이 밥을 해 먹었다.
- ③ 나는 일찍이 와서 오늘 업무를 준비했다.
- ④ 나는 일찍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 ⑤ 그런 일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조선 초에 송경 송인문 안에 한 선비 있으니, 성은 전이요 이름은 우치라. 일찍 높은 스승에게서 신선의 도를 배우되, 본래 재질이 뛰어나고 정성이 지극하여 마침내 오묘한 이치를 통하고 신기한 재주를 얻었으나 소리를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 지내므로 비록 가까이 지내는 이도 알 리 없더라.

이때 남방 해변 여러 고을이 여러 해 바다 도적의 노략을 당하고 옆친 데 덮쳐 무서운 흉년까지 만나니, 그곳 백성의 참혹한 형상은 이루 붓으로 그리지 못할지라. 그러나 조정에 벼슬하는 이들은 권세 다투기에만 눈이 붉고 가슴이 탈 뿐이요 백성의 고통은 모르는 듯 버려두니, 뜻있는 이가 통분함이 이를 길 없더니 우치 또한 참다못하여 뜻을 결단하고 집을 버리며 세상을 헤치고, 천하로써 집을 삼고 백성으로써 몸을 삼으려 하더라.

<중략>

이때 간의태위 상소하여 알,
 “호서 땅에 사오십 명이 모여 반역을 모의하여 조만간 기병(起兵)한다는 문서를 사자가 신에게 가져왔사오니, 그를 가두어 두고 사연을 아뢰나이다.”

상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과인이 박덕(薄德)하여 ㉠ 곳곳에 도적이 일어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오.”

하고 금부와 포청으로 잡으라 하시니, 오래지 않아 적당을 잡았거늘, 상이 친히 신문하는데 그중에 한 놈이,
 “선전관 전우치 재주 과인(過人)하기로 신 등이 우치로 임금을 삼아 만민을 평안케 하려 하더니, 하늘이 돕지 않아 발각되었으니 죄사무석(罪死無惜)*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때 우치 문사낭청(問事郎廳)*으로 있더니, 뜻밖에 이름이 역도(逆徒)의 진술에 나오는지라. 상이 대로하사,

하시니, 나졸이 명을 받들어 일시에 달려들어 관대를 벗기고 옥계 하에 꿇리니, 상이 진노하사 형틀에 올려 매고 죄를 추궁하여 알,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장난함도 용서치 못할 일이거늘, 이제 또 역적죄에 들었으니 ㉢ 변명한들 어찌 면하리오.”

하시고, 나졸을 호령하사 한 매에 죽이라 하시니, 집장과 나졸이 힘껏 치나 능히 또 매를 들지 못하고 ㉡ 팔이 아파 치지 못하거늘,

우치 아뢰되,
 “신의 전일 죄상은 죽어 마땅하오나, 금일 이 일은 만만 애매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심중에 생각하되,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아니시리라.’ 하고 다시 아뢰기를,
 “신이 이제 죽사올진대,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할지라. 지하에 돌아가오나 원혼이 되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은 원을 풀게 하옵소서.”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이 재주 능하다 하니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가라사대,
 “네 무슨 능함이 있어 이리 보채느냐?”

우치 아뢰기를,
 “신이 본대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걸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목이 나서 자라니 이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고 죽사오면 ㉣ 어찌 원통치 아니리오.”

상이 가만히 생각하되,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을까’ 하여 즉시 맨 것을 끌러 주시고 지필(紙筆)을 내리사 원을 풀라 하시니, ㉣ 우치 지필을 받자와 산수를 그리니 천봉만학과 만장폭포가 산 위로부터 산 밖으로 흐르게 그리고 시냇가에 버들을 그려 가지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그 밑에 안장 지은 나귀를 그리고, 붓을 던진 후 사은(謝恩)하매, 상이 물기를,
 “너는 ㉢ 방금 죽을 놈이라, 이제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우치 아뢰기를,
 “신이 이제 폐하를 하직하옵고 산림에 들어 여년을 마치고자 하와 아뢰나이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 동구에 들어가더니 이윽고 간 데 없거늘, 상이 대경하사 알,
 “내 이놈의 꾀에 또 속았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 「전우치전」 -

* 죄사무석 :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죄가 큼.
 * 문사낭청 : 죄인을 신문할 때 기록과 낭독을 맡은 임시 벼슬.

28. -- 위 글을 통해 ‘전우치’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지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였다.
- ② 조정에서 내린 벼슬을 받지 않았다.
- ③ 임금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 ④ 사사로운 이익보다 대의를 중시하였다.
- ⑤ 예전에도 나라를 곤란하게 한 적이 있다.

29. -- [A]와 비교하여 <보기>의 특징을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조 대왕 시절에 강원도 원주에 사는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전이요 명은 중보였다. 근본이 관노였지만 부자였고 늦도록 아들이 없어 걱정이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을 때, 중보는 재산을 풀어 백성을 구제한 공으로 벼슬을 얻었다. 인조 10년에 전중보는 신선의 제자가 자신의 덕성을 칭찬하는 꿈을 꾸 후 아들을 얻어서 이름을 우치라 하였다. 우치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걷고, 오십 일 만에는 언어를 통달하였다. 전중보는 불도를 가르칠 생각으로 우치를 절에 보냈다.

- ① 전우치의 태몽을 제시하여 인물의 신이성을 강화했군.
- ② 전우치의 출생을 전우치 아버지의 행적과 관련지었군.
- ③ 전우치의 득도 과정을 보여 주어 초월적 인물임을 강조했군.
- ④ 전우치의 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역사적 실재성을 부각했군.
- ⑤ 전우치 아버지의 원래 신분을 밝혀 전우치가 하층 출신 영웅임을 암시했군.

30. -- ㉠의 그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점]

<보기>

ㄱ.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ㄴ. 의롭지 못한 자를 단죄하는 방법이다.
 ㄷ. 주인공의 능력을 보여 주는 수단이다.
 ㄹ.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방편이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31. -- ㉠~㉣를 바꾸어 쓴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침소봉대(針小棒大)하니
- ② ㉡-목불인견(目不忍見)이리라
- ③ ㉢-수수방관(袖手傍觀)하거늘
- ④ ㉣-각골통한(刻骨痛恨)하리이다
- ⑤ ㉤-기사회생(起死回生)하리니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떨기 흰 장미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자.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식물학적 연구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나치에 항거하다 죽어 간, 저항 조직 '백장미'의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과 달리 우리는 종종 그저 그 꽃잎의 모양과 순백의 색깔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평소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순간들을 맛본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때에는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오직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어가 '미적 무관심성'이다. 칸트가 이 개념의 대표적인 대변자인데, 그에 따르면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미적인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X는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X의 형식적 측면이 우리의 감수성에 꽤 불쾌를 주는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무관심적 관심'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얻거나 알고자 하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X의 존재 가치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있다.

㉠ 대상의 개념이나 용도 및 현존으로부터의 완전한 거리 두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순수 미적인 차원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당화는, 쇼펜하우어에 이르러서는 예술미의 관조를 ㉡ 인간의 영적 구원의 한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사상으로서까지 발전하였다. 불교에 심취한 그는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개념에서 더 나아가 '미적 무목적성'을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는 '맹목적 의지'가 지배하는 곳으로, 거기에 사는 우리는 ㉢ 욕구와 결핍의 부단한 교차 속에서 고통받지만, 예술미에 도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해방을 맛본다. 즉 '의지의 폭정'에서 벗어나 ㉣ 잠정적인 열반에 도달한다.

미적 무관심성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옹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추구될 경우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을 또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독립 선언이 곧 ㉤ 고립 선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의 고유한 가치는 진리나 선과 같은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고양된다. 요컨대 예술은 다른 목적에 종속되는 한갓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의 지적·실천적 역할이 완전히 도외시되어서도 안 된다.

32. -- ㉠~㉣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대상의 유용성, 실제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심리적 태도
- ② ㉡ : 개별적 취향의 만족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정신의 구원으로까지 고양되는 경지
- ③ ㉢ : 끊임없이 무엇을 얻고자 하나, 완전한 만족 대신에 부족함만이 지배하는 상태의 지속

- ④ ㉔ : 예술미에 침잠하여 잠시나마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상태
- ⑤ ㉕ : 예술가들이 작품 창조를 위해 세속으로부터 고립된 별도의 작업 공간을 요구하는 선언

33. --영화에 대한 감상 중, 위 글의 칸트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영화는 그 시대의 모순 고발과 전망 제시라는 두 가지 숙제를 훌륭히 해내고 있는 우수작이야.
- ② 영화에 세상일을 개입시키려는 태도는 잘못이야. 영화는 보고 즐기는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니?
- ③ 이 영화의 색채 묘사나 카메라의 시점 처리 같은 대담한 형식 실험은 상식을 뛰어넘은 독특한 심미적 가능성을 열어 줬.
- ④ 이 영화의 흥행 가능성에 대해 난 매우 부정적이야. 주인공만 해도 어른들이나 좋아할 스타일이지, 우리가 보기엔 좀 어색하지 않니?
- ⑤ 영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소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낭비야.

34. --위 글의 주요 개념을 사용하여 <보기>의 '신베르크의 음악'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신베르크의 음악은 음의 높낮이와 리듬만으로 구성된 작은 단위들의 변형과 발전을 통해 구현되지만, 주음 - 부음 관계를 파괴하는 불협화음 전략에는 억압적 사회 구조로 인한 고통, 이에 대한 폭로와 저항 등이 오묘하게 함축되어 있다.

- ① '미적 무관심성'에서 '미적 무욕성'으로 이행하는 음악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 준다.
- ② '미적 무관심성'과 '미적 무욕성'이라는 조화되기 힘든 두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한다.
- ③ '미적 무관심성'과 예술의 '지적.실천적 역할'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예술의 가치를 잘 드러낸다.
- ④ '미적 무관심성'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추구함으로써 음악의 '지적.실천적 역할'을 수행한다.
- ⑤ '미적 무관심성'을 극한까지 밀고 간 작품으로, '지적.실천적 역할' 같은 음악 외적 요소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연관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물을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模寫)하는가?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 그것이 육면체라 판단한다고 하자. 그는 특정 시점 t1 에서 그것의 특정 속성을 관찰한 자료 d1 을 획득하고, 특정 시점 t2 에서 그것의 또 다른 속성을 관찰한 자료 d2 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관찰을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그는 최종 판단 시점 tN 에서 그때까지 그 사물의 모든 속성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들, 즉 d1 부터 dN 까지를 토대로 '이것은 육면체이다.'라고 판단한다. 철수의 관찰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t1	d1
t2	d1 + d2
.	.
.	.
tN	d1 + d2 + ... + dN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즉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다. 최종 판단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속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최종 판단 시점의 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주지 않는다. 그것들이 최종 판단의 자료로 유효하려면 t1 에서 tN 까지 사물의 속성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사고는 시공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 작용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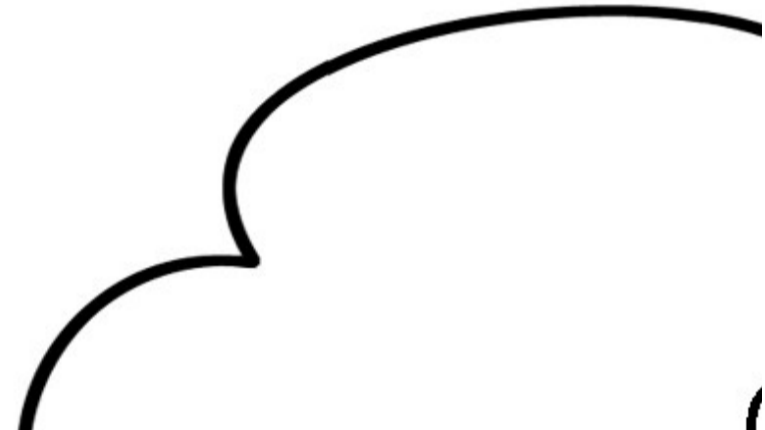
35. --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 ① 감각과 분리된 사고의 한계
- ②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물의 한계
- ③ 인간의 감각 기관의 발달 과정과 그 한계
- ④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
- ⑤ 인간의 의식 발달의 조건과 생물학적 한계

36. -- '철수'의 사고 과정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보기>

어떤 것의 속성인 색깔, 모양, 크기를 순서대로 관찰하면서 색깔의 관념, 모양의 관념, 크기의 관념을 순서대로 얻은 뒤, 이 세 개의 관념을 종합하여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판단한다.



- ① 색깔을 보는 시점에 크기의 관념은 의식 속에 없다.
- ②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
- ③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은 변했다.
- ④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 ⑤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은 변했다.

37. -- 위 글의 주제를 함축한 말로 강의를 시작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강의실이 어제의 이 강의실 맞나요?
- ② 오늘은 도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③ 여러분은 평소에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 ④ 우리는 곧잘 우리 자신이 한 약속조차 잊곤 합니다.
- ⑤ 오늘은 덧셈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8. -- ㉠의 어간 '불구하-'는 일부 어미와만 결합한다. 이와 같은 용언이 아닌 것은?

- ① 송아지가 애처롭게 울었다.
- ② 허구한 날 팔자 한탄만 한다.
- ③ 친구의 집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
- ④ 나는 서슴지 않고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 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잘 알고 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꺾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달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출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고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ㄱ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흥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 이때 두 —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이상, 「날개」 -

- * 미쓰고시 :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 * 회탁의 : 회색의 탁한.
- * 아달린 : 수면제의 일종.

39. -- 위 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0. -- 일제 강점기에 미쓰코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코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③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④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⑤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41. -- ㉠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보기>

철학과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다. ‘정오’는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때라는 것이다.

- ① ‘나’의 의식 상태는 ㉠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군.
- ②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뀐 것이겠군.
- ④ ‘나’는 ‘정오’가 되면서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되는군.
- ⑤ 이 작품은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겠군.

42. --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 사회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기술은 산업혁명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에 따라 기술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어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도 기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등장한 국가 기술 정책의 수단이 기술 영향 평가(technology assessment)이다. 기술 영향 평가는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다음,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창기의 기술 영향 평가는 이미 개발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평가하고 처방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평가와 처방은 기술에 대한 ‘통제의 딜레마’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통제의 딜레마란, 비록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어떤 기술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지라도, 그 기술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딜레마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통제의 딜레마로 인해 사후적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을 통제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기술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 변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전적이고 과정적인 기술 영향 평가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기술이 일방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기술 변화의 내용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술사회학적 인식이 그 배경이 되었다. 이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 개발의 과정에 초점을 둬으로써 기술 통제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기술 영향 평가에 비해 좀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 영향 평가는 통제의 딜레마를 완전 히 해결했는가? 이 질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방향은 불확실성이 많아 사전적이고 과정적인 평가조차도 기술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혹 잘 예측하여 기술 통제를 위해 적절한 기술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

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이 기술 영향 평가는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43.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기술과 사회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이다.
- ② 과학적 기술 예측은 기술 통제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 ③ 기술 발전의 방향을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 ④ 기술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기술 영향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44.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현상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어떤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평가하고 있다.
- ③ 어떤 현상의 문제점을 상반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절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④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정하고, 각각의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45. --'통제의 딜레마'로 야기된 상황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은?

- ① 비디오테이프에는 베타 방식과 VHS 방식이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시장에서는 후자가 선택되었다.
- ② 구소련 체르노빌 핵 발전소에서는 작업자들이 원자로의 기계적 결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방사능이 누출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 ③ 홍수 방지를 위한 댐의 규모를 정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했다. 하지만 규모에 따른 홍수 방지 효과를 잘못 계산하여 결국 홍수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 ④ 개발이 거의 완료된 어떤 청정 에너지 기술이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된 까닭에 중단할 수 없었다.
- ⑤ 1986년 미 항공 우주국은 우주선 로켓 부스터의 접합부를 밀폐하는 오링(O-ring)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허용 범위 이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바람에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행의 핵심 업무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 유치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일이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며, 국민 경제 차원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고객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 역할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고객의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은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만 상대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 나아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금융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의 대상이자,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경제 관념이 ㉡ 희박하고 소득 창출 능력 또한 ㉢ 떨어지므로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배제층에게 소액의 창업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면서도 은행을 무색케 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 거두는 사례도 있다. 빈곤층의 자활을 지향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가 그것이다.

세계적인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용자를 희망하는 최저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섯 명이 자발적으로 짝을 지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먼저 두 명에게 창업 자금을 제공한 후 이들이 매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분할 상환 약속을 지키면 그 다음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들이 모두 상환에 성공하면 마지막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이 소액의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다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 이런 방법으로 '그라민은행'은 99%의 높은 상환율을 달성할 수 있었고, 장기 용자 대상자 중 42%가 빈곤선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자기 사업을 ㉥ 벌일 인적·물적 자본의 확보가 자활의 핵심 요건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사회연대은행'이 대출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영상의 조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들 단체의 실험은 금융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과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임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6.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의 정신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산 입에 거미줄 치랴.
- 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ㄷ. 궁핍은 매섭지만 좋은 교사이다.
- ㄹ.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7. --㉠에 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성들을 대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창업 교육의 효과가 남성에게 비해 크기 때문이겠군.
- ② 매주 조금씩 분할 상환하게 한 것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자발적으로 짝을 짓도록 한 것은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동료의 돈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성원 간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경우 추가 용자를 제공하는 것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겠군.

48. --‘마이크로크레딧’ 운동과 관련하여 <보기>와 같은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보기〉

높은 헌신성에 기반하여 묵묵히 훌륭한 성과를 내던 단체들이 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면 초심을 잃고 외형상의 성장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양질의 창업 지원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도록 하려면, 이들 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

- ①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간 단체 대신 은행이 마이크로크레딧 업무를 담당하도록 유도한다.
- ②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대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한다.
- ③ 창업 지원 담당자의 보수를 민간 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④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 ⑤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사용될 기금을 조성하고, 단일한 중앙 조직이 전국의 각 지점을 통해 그 기금을 사용하도록 한다.

49. --㉡~㉣의 문맥적 의미를 살려 문장을 만들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점]

- ① ㉡ : 정부는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 ② ㉢ : 그 사람은 응석받이로 자라 자립심이 희박하다.
- ③ ㉣ : 이 옷은 다른 옷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 ④ ㉡ : 그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 ⑤ ㉢ : 그 둘은 만나기만 하면 입씨름을 벌린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